

투데이

광주·전남 자치단체 15곳 관사 운영 예산낭비 여전

광주시 관리비용 연 1700만원·곡성군 2800만원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밑돌면서 세금낭비” 지적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관사(官舍)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 단체장들이 대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따로 관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경실련협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역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관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관리비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24개 지자체 중 광주시, 전남도, 광양·목포·순천시, 강진·곡성·보성·영광·완도·진도·함평·해남·무안·화순군 등

사용했다.

또 무안군, 해남군, 보성, 화순 등이 여전히 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해 30만~2800만원을 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다. 곡성, 무안, 해남은 민선 4기에에는 운영하지 않았던 관사를 민선 5기에 들어 부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광양(39.5%)은 관사 철거 계획을 세웠고 곡성, 영광, 목포 등도 향후 관사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화순도 관사를 내방객 숙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실련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에서 살고 있는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을 고려하면 관사 사용은 오히려 낭비다”면서 “향후 아파트형 관사는 매각하고, 독립형 관사는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소장 동시 이식땐 대장·위장도 장기이식 포함

복지부 장기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대장·위장·십이지장·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이 필요한 경우 장기 이식 대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장기증 관리체계 주요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

안구·췌도·소장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49개 병원에서 413개 의료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경외과·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하는 방식이며 미국·프랑스·스페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 기증 유족들은 장기증 관리체계 주요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美 자치단체장, 日 위안부 만행 공식 인정

미국 뉴욕주 낫소카운티 아이젠하워파크 현충원에 세워진 ‘위안부 기념비’에 대한 일본 일부 보수단체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애드워드 맹가노(Edward P.Mangano) 낫소카운티장이 ‘위안부 기념비 건립을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미국의 자치단체장이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의 만행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맹가노 시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세계 언론을 상대로 밝힌 보도자료에서 “나는 ‘일본에 의해 위안부에게 저질러진 행위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려는’ 한미공공정책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에서 민감한 시기에 그려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너

무도 오랫동안 일반인들에게 감춰져 왔다”며 “이곳 낫소카운티에 세워진 기념비는 ‘20만여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잔혹한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보고 또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맹가노 시장은 이어 “기념비는 높이 2.6피트, 너비 3피트, 두께 8인치 그리고 백침대는 두께 1푸트, 너비 3.6피트”라며 기념비의 형태와 크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를 다시 한번 반복,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되새겼다.

/뉴욕=홍행기자 redplane@

“기름값 20% 낮춘다” 국민석유회사 설립 추진

기름값을 지금보다 20% 낮춘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석유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석유회사 준비위원회(상임 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21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량 소유자 등 유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인 1주 갖기 운동 등을 벌여 초기 설립자금 1000억원을 마련, 국민석유회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준비위 측은 이를 위한 인터넷 약정이 홈페이지(www.n-oil.co.kr)를

개설한 지 보름 만에 50억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의 ‘국민석유회사에 대한 10분10답’을 보면, 이들은 “석유 4사(정유사)가 1년에 5조5000억씩 폴리를 취하고 정부가 유류세로 1년에 26조원 이상 거둬들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소비자들이 꼼꼼히 써온 기름값이 아우디 비싸도 안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기름값에 소비자가 참여해 거울을 빼자”고 했다.

또 20% 값싼 기름을 공급할 방

법에 대해 “현재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비싼 중질원유와 정제비 때문”이라며 “국민석유회사는 값싼 캐나다와 시베리아의 저유황원유를 도입해 원가·정제비·운송비 절감으로 값싼 기름을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원의 자본금에 정책자금을 요구, 정제시설을 만드는 계획이다.

1차 준비위에는 이윤구 전 적십자 총재, 전득주 녹산학술재단 이사장, 정동의 4월 혁명회 상임의장, 김재실 전 산은캐피탈 회장, 윤종웅

전 하이트맥주 최고경영자, 이팔호 전 경찰청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고문, 이부영 한국교육복지포럼 상임대표, 국악인 임진택씨, 사진작가 조세현씨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새누리당 이성현 전 의원, 안경을 전 사무총장, 통합민주당 이인영·설현·민병두 의원 등이 동참했다.

준비위 측은 8월 말까지 지역 조직 결성을 끝내 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1일 장성 농어촌 뉴타운(장성드림빌) 입주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박준영 전남지사, 김양수 장성군수 등과 함께 표지석 제막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귀농은 도시와 농어촌 상생 열쇠”

김총리, 장성 ‘농어촌 뉴타운’ 첫 입주식 참석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귀농·귀촌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함평 상모 행복마을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김총리는 미래형 농어촌 주거단지로 시범 추진된 ‘장성 유령지구 농어촌 뉴타운’의 전국 첫 입주식에도 참석했다.

김총리는 이날 상모 행복마을을 찾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 차립과 주민들 소통을 통해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게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의 표준 모델이다”고 강조했다.

또 “귀농·귀촌은 도시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과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 장성 유령지구 농어촌 뉴타운 입주식에는 김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이낙연·백군기 국회의원,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입주민, 지역 주민 등이 참석, 첫 출발을 축하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 5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촌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장성과 화순에 각 200세대, 고창에 100세대, 장수·단양 각 75세대가 조성 중이다.

박준영 지사는 환영사에서 “전남이 타지역에 비해 뛰어난 자연환경과 귀농귀촌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농어촌 뉴타운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장미공고 제2012-02호』

설계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건축설계에 관련하여 전문성과 건축설계 능력이 우수한 건축설계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 명 : 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71번길 23-1 일원
3) 대지면적 : 29,993.78㎡

2. 입찰방식 및 입찰참여자격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건축사업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실적이 3건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2년 7월 2일 오후 3시00분
2) 장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71번길 23-1
장미아파트 삼가동 301호(조합사무실)

3) 참석물 : ① 건축사업부 신고필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에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④ 참석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 제작증명서 및 신분증 카피)

4. 입찰제안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 2012년 7월 23일 오후 5시까지
2)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71번길 23-1
장미아파트 삼가동 301호(조합사무실)

3)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에 의함

5. 선정방법

당 조합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함

6. 기타사항

1)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에 의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조합의 결정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업체는 조합의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결정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서류접수 미감 이하에 서류보완 또는 기재사항 변경은 일체 허용치 않아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류 미비 또는 허위기재 혐의는 서류 접수 시 탈락 또는 서류접수 취소함

4)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5) 문의처 : 조합사무실 전화 : 062-671-4888 / 팩스 : 062-671-8881

2012년 6월 22일

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박운호

카드대금 “즉시결재”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통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종교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능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전 | 남 | 영 |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번지
(전남방지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m²

■ 건물면적 : 7,305.36m²(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 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 과
1 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 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 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